

산자부-산업계 기후변화협력 대응 파트너십 본격가동

‘기후변화협약대응 추진협의회 발족’, ‘지속가능발전전’ 수립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산업계와 정부간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협의회’가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과 10개 업종별대책반 협회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2.13(화), 오전 11시 COEX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최근 포스트교토체제 협상 본격화 및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채널인 ‘기후변화대응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선 이재훈 산자부 차관과 산업계 대표(서부발전 김종신 사장)간 ‘기후변화협약대응 추진협력 합의서’ 조인을 통해 업계와 정부간 공식협의 채널인 ‘기후변화대응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아울러 추진협의회 발족이후 이루어진 첫 회의에서는 산자부가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산업계가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대응전략’을 발표하는 등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되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제 협상대책 수립,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응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지원정책 발굴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재훈 산자부 차관, 10개 업종별 대책반 협회회장, 전경련, 대한상의 부회장, 에경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추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에서 개도국의 다양한 의무부담 방식이 논의 되는 등 협상이 본격화되고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 요구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산업계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할 수 있

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개최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산자부 이재훈 차관과 10개 업종별 대책반등 업계를 대표한 김종신 서부발전 사장은 산자부와 업계간 기후변화대응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협력 합의서’에 조인하였으며 동 협력합의서 조인을 통해 산자부와 업계간 공식적 협력채널인 ‘기후변화협약대응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동 추진협의회는 산자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업종별대책반 회장 및 전경련,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여하고 산하의 ‘실무협의회’와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실무작업반을 수시 개최하여 정부와 업계간 기후변화협약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이루어진 추진협의회 첫 회의에서 산자부는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지속가능발전 전략 필요성을 언급하고 산업계는 급변하는 내외 환경변화 가운데 외국의 우수 기업 대응 사례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토대로 한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금일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대응추진협의회’를 기존의 10개 업종별 대책반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산업계 지속가능발전전략, 국내 협상전략 수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對산업계 지원정책 발굴 등을 위한 산업계와 정부간 공식적인 정책협의 채널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포스트교토체제 협상 관련 우리업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등 기후변화협약대응 이행기반구축과 더불어 청정개발제도(CDM),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제도 등을 통해 우리 업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1.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배경

- 국제적으로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가속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요구에 따라 산업계와 정부간 정책협의 기능강화 필요
- '06년도 하반기 업종별대책 점검회의에서 추진협의회 구성 필요성 제기

2.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향

- 구성 : 정부, 10개 업종 대표, 경제단체, 전문기관
 - 정부 : 산자부 차관
 - 산업계 :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도시가스, 디스플레이 협회 회장
 - 경제단체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전경련 전무
 - 전문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추진체계 : 추진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와 실무작업팀 구성·운영
- 운영방향 : 기존업종별 대책반과 연계해서 정부 산업계간 정책협의 채널로 활용

3. 주요 기능

- 각종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업계 지원정책 발굴·협의
-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등 국제협상에서 산업계 대응전략 수립
- 국내 기후변화협약 이행 대책 마련(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등)
- 업종간 협력 강화 및 조정 등

4. 운영계획 : 산업계, 정부 필요시 개최

- 추진협의회 : 매년 기후 Week기간 중 정기적으로 개최
- 실무협의회 : 업종별대책반 실적점검회의와 연계 개최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협의회 조직도

